



녹용의 임상 효능 및 이용

1. 약용 사슴

사슴의 종류는 대략 47종에 150~200아 종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약용으로 사용하는 사슴은 현재 매화록, 적록, 엘크 등이 주류를 이룬다. 그 중 전통적으로 한방의료에 사용해왔던 사슴은 녹과의 매화록과 마록의 굳지 않은 뿔을 가공한 것이다.

2. 녹용의 생리

뿔은 숫사슴의 위용이며 사슴의 번식기에는 강한 힘을 자랑하는 무기역할을 하고 암사슴 번식군의 안정을 유지하는 상징이다.

추운 겨울을 지내고 따스해지면 숫사슴은 성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녹용이 자라기 시작하여 호르몬이 극대화될 때까지 대략 3개월간 뿔이 자란다. 이 3개월간은 고환에 정충이 생성되지 않는다. 그 후 남성호르몬의 다량 분비는 뿔의 각화를 가져오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정충의 생성이 이루어지고 생식기에 접어들게 된다. 생식기를 지나 낙각이 되면 정충의 생성

은 소멸된다. 뿔은 매년 자라나고 재생하는 것을 반복하며 다른 신체 부위와는 다르게 대사가율이 왕성하다.

사슴은 담낭이 없어 간에서 담즙이 생성되어도 담낭에 저장되지 않고 곧바로 십이지장으로 흘러 들어간다.



설인찬/대전대학교 부속한방병원 교수

3. 양질의 녹용 구별법

외형상 굵고 상부로부터 20cm전후에서 Y자 모양으로 갈라진 녹용이 좋고 가지가 많지 않으며 색은 적갈색을 띠고 부패한 냄새가 없어야 한다. 녹용에 난 털은 짧고 회색을 띤 것이 양호하며 절단했을 때는 절단면의 치밀도가 균일하고 구멍이 작은 것일수록 상품이다. 또한 건

조상태가 좋아야 한다.

4. 사슴의 부위별 약성

녹용(鹿茸) -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면서 시고(쓰면서 맵다고도 한다) 독이 없다. 허로로 몸이 여위는 것과 팔다리 와 허리, 등뼈가 시고 아픈 것을 치료하며 남자의 신기가 허랭하고 다리와 무



릎에 힘이 없는 것을 보한다. 또한 몽설과 봉루, 적백대하를 치료하고 안태시킨다.(본초)

녹각(鹿角) -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짜며 독이 없다. 옹저, 창종을 치료하며 굶은 피, 증오과 주병으로 가슴과 배가 아픈 것과 뼈가 부러져서 생긴 상처, 허리나 등뼈가 아픈 것을 치료한다. 약으로는 저절로 떨어진 것을 쓰지 않는다.(본초) 식초에 달여서 썰어 쓰거나 누렇게 되도록 구워 쓰거나 태워 가루 내어 쓴다.(입문)

녹골(鹿骨) - 성질이 약간 열하고(따뜻하다고 한다)맛이 달며 독이 없는데 허로를 치료한다. 이것으로 만든 술은 허한 것을 보하고 풍증을 낫게 한다. 또한 태아를 안정시키고 기를 내리며 헛것을 없앤다.(본초)

녹수(鹿髓) -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남자나 여자가 내장이 상하여 맥이 끊어지고 힘줄과 뼈가 약하여 팔다리를 가누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양기를 세지게 하고 아이를 낳게 한다. 술에 타서 먹는다. 사슴의 골수로 술을 만들 수 있다.(본초)

녹혈(鹿血) - 허한 것을 보하고 허리가 아픈 것을 멎게 하며 폐위로 피를 토하는 것과 봉루와 대하를 치료한다. 어떤 사람이 사냥을 갔다가 길을 잃었는데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다. 그리하여 사슴을 잡아 피를 마셨는데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던 것이 곧 없어지고 기혈은 평상시보다 든든해졌다고 한다. 다른 사

람이 이것을 알고 사슴의 양쪽 뺨 사이를 찢어서 피를 내어 술을 타서 마셨는데 더 좋았다고 한다.(본초)

녹육(鹿肉) -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허해서 여윈 것을 보하고 오장을 튼튼하게 하며 기력을 돕고 혈액을 고르게 한다.(본초) 사람을 보하는데는 사슴의 몸통 전체가 산짐승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이다. 고기를 말리거나 삶거나 찌서 술과 함께 먹는다. 그러나 약을 먹을 때에는 먹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사슴이 늘 독풀이하는(해독) 풀을 먹으므로 약 효과가 적어지게 하기 때문이다.(입문)

녹두(鹿頭) - 소갈과 밤에 꿈이 많은 것을 치료하는데 대가리고기를 먹는다.(본초)

녹신(鹿腎) - 성질은 평하다. 신을 보하고 양기를 세지게 한다.(본초)

녹제(鹿蹄) - 발굽고기는 주로 다리와 무릎이 시글고 아픈 것을 치료한다.(본초)

녹근(鹿筋) - 허로 손상에 쓰는데 부러진 것을 이어지게 한다.(본초)

4-1 녹용의 약리

지금까지 실험실에서 밝혀진 녹용의 약리작용은 면역강화, 조혈기능의 촉진, 간의 대사작용 촉진, 신경계의 강화 등이 있으며 임상적으로는 강심작용, 강장작용, 중추신경 및 자율신경계의 진정작용, 근육의 피로회복, 세포의 재생 및 대사촉진, 내분비계의 기능 촉진, 소화



기계의 기능 활성화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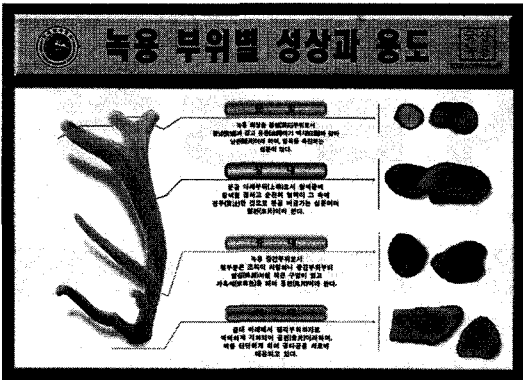
녹용에 들어 있는 성분으로는 인산칼슘, 미량의 호르몬, P, Ca, Mg 등을 함유한 회분, 복합아미노산과 단백질, 지방 등이다.

4-2 녹용의 부위별 약성

약효 : 온신보양, 강근골, 건위, 생정보혈

입상 : 생식기능, 성장발육 촉진, 보혈작용, 심장기능증대, 신경쇠약, 자궁출혈, 피부의 난치성 궤양

분골 : 녹용의 꼭지부분으로 어린아이의 성장을 촉진하고 면역증강 작용을 한다.



상대 : 녹용의 윗부분으로 조직이 치밀하며 모든 성인의 기력을 보한다.

중대 : 녹용의 중간부분으로 조직이 약간 성글며 하초를 보할 때 사용한다.

하대 : 녹용의 아랫부분으로 조직이 거칠고 녹각과 함께 사용한다.

5. 보약과 녹용

보약을 쓰는 목적 - 보약은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예방적인 목적이 강하다. 따라서 병이 발생하고 난 후 보약을 찾기보다는 건강할 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고 절제된 생활을 통해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

보약은 몸의 허약한 부분을 보충하여 가장 정상적인 상태, 즉 정신적 육체적으로 최상의 상태를 조성하는 건강증진약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밝혀진 사실을 살펴보면 보약은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물질을 보충해주고 정신적 육체적 활동능력을 높이며 생체의 면역기능을 도와 방어기전을 높여주고 노화과정을 늦추며 세포의 재생과정을 촉진할 뿐 아니라 몸의 쇠약해진 기능을 높여 질병을 낮게 한다.

6. 녹용 복용시 주의점

대황, 파두, 망초, 우방자, 노회, 마인 등의 약과는 함께 사용하지 않고 음허, 번조, 고열, 맥빈삭, 오한, 발열, 소화장애, 설사, 장년으로 건강한자는 피한다. 청량 음료수, 김, 미역 등의 요오드 함유식품, 육류지방, 밀가루 음식은 삼가 한다. **만크양륙**